선생의 이름 팔아 자신의 뜻 이루려는 자들
회개하라

작성일 : 2011. 1. 14(금) 천국성령운동 기도시간
작성자 : 정은조 (부산 주하나)

[준비찬양 하는 중에 잠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섭리에서 선생님을 위한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에 대해 심정이 상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때는 그냥 적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계속 찬양 중, 찬양이 끝날 즈음부터 주님께서 계속 '나의 말을 받으라'하셔서 기도시간에 받아쓴 글입니다.]

* 예수님 말씀 *

수많은 자들이 섭리에 있다.
그러나 선생의 말 안 듣는 자들이 있어
한마디 하고자 하니 쓰거라.

세상에 그 얼마나 잘나
나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말 보다
위대한 것이 있으며
그 뜻을 이루는 시대 선생과 같은 자 있느냐.

("없지요.")

그래. 모두가 그리 알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 주노니 잘 받아쓰길 원하노라.

섭리사.
나의 피와 땀으로 이룬 나의 원대한 역사이다.
그러나 이 섭리사, 내 뜻 이루려는 그 순수함을 잊은 채
자신의 뜻 이루려는 자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나는 이 섭리사에서 지우려 한다.

선생을 위한다 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익을 위하는 자들...
늘 있어왔지만 이제는 뿌리 뽑으려 한다.
그 영혼들이 지옥에 있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
그 영혼들의 소리를 그들의 육이 듣지 못함이라.

내 사랑 너희 섭리사여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하라 했다.
이는 너희를 나의 온전한 신부 삼아
재림을 맞게 하기 위함이니
그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행해 오고 있는 자들,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뜻을 이루기 이전에
그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
결코 나와 이 역사를 끝까지 갈 수 없다.
마치 나의 마차에 그의 짐을 싣지만
그의 무게를 스스로 이기지 못해
떨어져 나가는 덧붙여진 짐 같아서
내가 그의 짐을 져주지 않는 연고니라.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차에 추수한 볏단이 가득했는데
줄로 잘 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볏단 아닌 다른 짐을
그 마차를 이용해 옮기려고
누군가가 얹어놓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차가 움직이자 그 짐은
줄로 매여져 있지 않아 균형을 잡지 못하고
결국은 떨어져버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 오라 하였지만
그 짐들은 그 스스로 져야 할 짐들이며
나 예수와 상관없는 짐들인 까닭이라.

순수하지 못하게
섭리의 규모를 이용해 인맥을 이용해
선생의 이름을 이용해
개인의 뜻 이루려 선생 팔고 나 파는
개인, 집단들이여,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지어다.
너희의 사고가 썩어 문드러지기까지 무엇을 했느냐.
너희의 생각이 그리 돌아가기까지 무엇을 했느냐.
순간순간 그때그때
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은 죄가 쌓이고 쌓여서
너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구나.

그런 자들에게 전해라.

그 영혼이 죽음같이
그 육신도 죽은 것이라고 일러라.
그 육신이 죽었다 함은
단지 육신의 사망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을 행치 못하게 되는 것이니
나 예수가 그들의 행위를 처음부터 다 지켜보았을 진대
그냥 두지 않을 것임이라.

나 예수의 역사, 선생 통해 이루는데
그것을 두 눈 뜨고 보면서도 인정치 않으니
그런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냐.
그러하니 그들의 죄는
보낸 자를 불신한 가장 큰 죄로 취급받을 것이라.

섭리사 그동안 나 위한다, 선생 위한다 하면서
여러 일들 꾸며왔지만
진정 그것이 선생 위한 일이면
선생과 의논하고 나와 의논해 나의 결재 받고 해야지.
옳은 일도 나와 의논치 않고 행하면
그 뜻도 사라지고
사탄의 이용도구가 되어 사용될 뿐이라.

사랑하는 섭리사 신부들,
진정 사랑하는 선생 위해
이것 한다 저것 한다 하면서
무질서로 서로를 꾀는 자 있더냐.
그런 자들의 사고를 면밀히 뜯어보아라.
나 예수와 선생의 뜻인지,
원하는 일인지, 원하는 방법인지...
세밀히 보지 않고 속는 자 없길 바란다.
그 속은 자 또한
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죄이니
나의 말씀과 나의 심정에 무지한 죄인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느냐?
섭리사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
선생의 머리가 아프다.
그 끊이지 않는 문제들의 짐을
결국 선생이 다 짊어져야 하니 그런 것이다.
나 예수의 뜻 이루기도 바쁜데
이런 저런 문제들로 사탄이 선생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선생이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사탄들은 항상 선생의 시간을 뺏고
선생의 신경을 빼앗으려 총력을 기울인다.

너희가 해야 할 기도 이것이다.
선생이 필요 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
선생이 진정 나의 구원의 역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선생이 필요 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들에게 속는 자가 없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느냐.
사상단속, 마음단속, 문단속.
오직 선생을 통한 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너희들이 되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커지길 바라며,
정 모르겠으면 선생에게 되물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이지 않겠느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섭리사. 나, 선생의 이름 팔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많다.
각종 계시로, 각종 사업으로, 각종 모임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니
나 예수가 너를 통해 따끔하게 경고하고자 함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처음 선생 만나 그를 신처럼 보고 나처럼 보았던
그 순수한 마음을 되찾으라 하여라.
그러한 회개와 돌이킴 없이는 그러한 자들의 말로를
나 예수가 책임지지 않을 것임이라.

사랑해서 너희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길 원치 않는 나 예수지만
그러한 자들의 행위까지 책임질 수는 없느니라.
나 예수의 무한한 사랑도
사탄의 경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음이니라.
이미 그가 그 선을 넘어갔기 때문이다.
다시 회개함만이 다시 그 선을 넘어오는 것이다.
기필코 그 선을 다시 넘어오지 않고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어라.
이 글이 그들에게 경고가 되어
다시 그 선을 넘어 나 예수의 품 안으로, 뜻 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주는 사랑의 글이니
네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하여도 전하도록 하여라.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선생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 선생에게도 구한다.
이제는 선생을 위해서도
그들의 행위를 참지 말라 구한다.
너희는 선생의 참아주는 그 모습만 봐서
또 그것을 기대하겠지만
이제는 나 예수가 참지 않음이니
이 또한 대역사를 가기 위한 청소이며 작업이니라.

너희는 나 예수의 말을 듣고
이 명을 지켜 이 환란에서 목숨을 구하고
나의 대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사랑해서 나 예수가 너희에게 주는
기회의 글이노라.